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
북 지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1.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10. 6.

다. 상정일자: 2021. 10. 14.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복지국장

나.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전환하고, 돌봄노동 등 비경제적인 활동이지만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경력단절이 지닌 결핍 등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적용대상 및 책무(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안 제6조)
-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7조)
- 마.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안 제8조)
- 바.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 등(안 제9조)
- 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설치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아. 교육 및 홍보, 표창 수여(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 자. 다른 기관등과의 협력(안 제1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자원 조례」
- 나. 협조부서: 여성가족과
-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라. 입법예고(2021. 8. 19. ~ 9.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통해 존중 및 권익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 및 2개의 별지서식으로 구성.
-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이들이 수행한 돌봄노동이 사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활동으로 보

고 경력으로 인정, '경력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취업 지원에 도움.

○ 서울시 통계(2019년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에 따르면 2018년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1%로 남성의 71.9%에 비해 적고, 여성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10만원으로 남성 334만원의 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서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1%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높은 편이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여 서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각각 69.4%, 66.9%, 61.2%로 나타나고 있음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여성의 24%이고, 남성은 14%로 10% 가량 여성이 더 높다. 최근 3년 간의 추세를 보면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16년 24.1%에서 2017년에 23.9%, 2018년 24.0%으로 변동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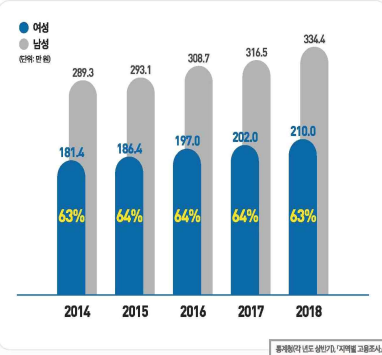
-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육아 및 가사'로 인해 현재 비경제활동 상태인 여성은 전체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학 및 진학준비'가 17.8%, '나이' 7.7%, '기타' 6.4%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정부의 처우개선지원금을 제하고 나면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임금은

서울 임금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활동

- 2018년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10만원, 남성은 334만원
- 2018년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3% 수준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Top3)

보건업, 사회복지업	49%
전기, 가스, 증기	47%
금융 및 보험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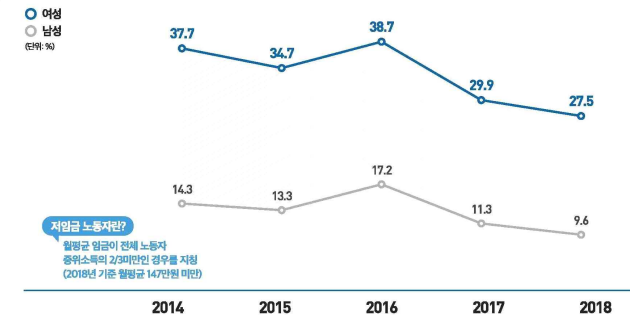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낮은 산업

하수, 폐기물, 환경	1%
운수	9%
국제 및 외국기관	18%

출처: 통계청(2018년 산업별, 지역별 고용조사)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 2018년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여성 27.5%, 남성 9.6%로, 여성이 3배 가량 높음
-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감소 추세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주야간 교대하며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86만원(2019년 현재)으로 역시나 최저임금 수준이다.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75시간, 월평균 급여는 80만원에 불과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 보미 등의 돌봄노동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으나,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선진국에서는 돌봄노동자를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여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 즉 한국, 미국 등에서의 돌봄노동자는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알선 받는 구조로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시간, 고용계약에 노출되어 있다.
-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바꾸면 같은 구직자라도 경력보유여성으로 불릴 때 더 큰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고, 채용

시 경력 공백 또는 단절보다는 역량과 전문성의 보유에 초점을 맞췄을 때 최적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경력보유여성을 ‘일 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또 이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 경력보유여성등이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에서 경력 요건을 확인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며, 이때 돌봄 대상은 만 65살 이상 어르신, 만 13살 미만 어린이, 병원·시설·재가 환자 등이 포함되는데 경력단절이 지닌 결핍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내에 있는 위커넥트, 루트임팩트 등 소셜벤처기업들이 먼저 ‘경력 단절여성’ 용어 대신 ‘경력보유여성’을 사용하고 경력보유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채용해온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채용을 연결하는 위커넥트는 2018년 창업 초기부터 여성의 경험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려 ‘경력보유여성’이란 용어를 썼고, 루트임팩트 역시 2018년부터 ‘임팩트 커리어 W’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경력보유여성이란 단어를 쓰면서 이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일을 수년간 진행해 왔는데

- 성동구도 2019년부터 소셜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보유여성을 교육하는 위커넥트의 ‘커리어 리스타트 챌린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약 300명이 수료했습니다.

○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으로 호칭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경력인정서가 실제 채용시 적극 활용·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기업과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9개의 자치구에서 제정하였고, 전국적으로는 1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¹⁾ (2021. 9. 28. 기준)

- “경력보유여성등”이라는 명칭은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경력인정서” 발급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선도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경력인정서”가 취업 시 많은 기업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관계기관 및 기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경력단절”로 검색

- 본 조례안은 육아, 돌봄노동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경력이 정지된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그동안 관습적으로 사용되어온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전환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뿐 아니라 돌봄노동 등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취업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조례안으로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